

어영역

당신이 세상을 창조한다.

-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필름이라는 영원으로 남기자.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십니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다른 동아리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창조의 쾌감!
다른 동아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

시나리오·콘티 작성, 촬영, 편집.
영화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만의
소우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내 유일의 영상동아리, '제우스'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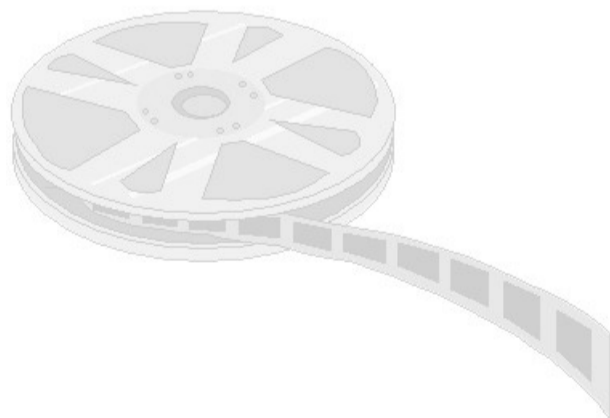
일은 옷에 신경 쓰며 배짱이로 살아가네.
생활은 엉망진창 성적은 곤두박질.

일으로만 요란한 빈 수레는 되지 말라.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앞서야 하네.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파김치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기 그지없네.

입시에 찌들어 예전 모습 다 잊었네.
생동하던 내 모습 신기루처럼 사라졌네.

일 소문대로 선배 무시하는 못된 송아지로세.
생면부지 후배지만 따스하게 감싸 보리.



어영역




어느 가시덤불 쪽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나) 설날 아침에 김중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가) 무등(?)을 보며 서정주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어 영역

[2.2 점]

- 김수영의 '폭포'에서

- 이성부의 '벼'에서

-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서

- 김광섭의 '산'에서

- 박남수의 '종소리'에서

인간 사회의 주요한 자원 분배 체계로 '시장(??)', '재분배(???)', '호혜(??)'를 들 수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물질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이며, 재분배는 국가와 같은 지배 기구가 잉여 물자나 노동력 등을 집중시키거나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 대책, 노인 복지 등과 같은 것이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호혜는 공동체 내에서 혈연 및 동료 간의 의무로서 행해지는 증여 관계이다. 명절 때의 선물 교환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이 세 분배 체계는 각각 인류사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호혜를 중심으로, 전근대 국가 체제에서는 재분배를 중심으로 분배 체계가 형성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시장이라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 체계가 활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분배 체계는 인류사 대부분의 시기에 공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도 시장은 미미하게나마 존재했었고, 오늘날에도 호혜와 재분배는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류는 아직 시장만한 자원 분배 체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소득 분배의 ㉠형평(??)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때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한 재분배 활동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혜는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대신하기 어려운 소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영역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관행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서로 길·
흉사(凶事)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행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불우
이웃에 대한 기부와 봉사 등은 시장이나 국가가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호혜는 다른 분배 체계와는 달리 물질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호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행위의 목적이 인간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적 유대 관계는 물질적 풍요 못지 않게 중요한 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소득 증진을 위해 투입해야 할 시간과
재화를 인간적 유대를 위해 기꺼이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정신적으로도 풍족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이러한
사회는 효율적인 시장과 공정한 국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건강한
가정·친척·동료가 서로 지원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 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호혜는 건전한 시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적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논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와 선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윤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존 롤즈(J. Rawls)에 의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나 체제의 윤리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는
언제나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어서,
그 사회적 조건은 공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 간의 상호 관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롤즈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제도들에 주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당한 사회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비록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도, 그것이 그릇된 사회 기본 구조를 호도(?)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정의롭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욕구의 종류와 형태까지도 결정하는 틀로서의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격, 욕구, 관심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어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대체로 규정해 준다. 사람들은
사회적 여건과 현재의 위치에 따라 자신을 바라볼 것이며
그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 구조는 개인의 욕구나 포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미래의 욕구와 포부를 형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나아가 개인의 지능이나 능력도 고정된

어 영역

자연의 혜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재능은 사회적 조건과 관련되지 않고는 그 잠재된 가능성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성격, 이상, 포부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의 발휘도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의 기본 구조는 윤리적 차원에서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장에 대한 합의라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개인들에게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세계관, 종교관, 가치관 등에 있어서 개인들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윤리관 에 따르면 이러한 불일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계기로 작용한다. 일단 우리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율해 줄 원칙에 합의하고 그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사회 체제를 정립할 경우, 그러한 제도는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 가치관들을 허용할 것이며, 그것들 간의 충돌을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룰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열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춧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뭇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어영역

	<p>때문에 속도 무던히도 썩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팜 뱅 뭉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체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뭉쓸 자식들 하고 허 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줄행랑을 논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 비슬비슬 멀어졌다.</p> <p>"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흘리개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p> <p>"고 녀석, 말투가……."</p>
	<p>아이는 앵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 생원은 모르는 결에 낮이 뜨거워졌다. 못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어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p>
	<p>아이의 웃음소리에 ㉠허 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p> <p>"쫓으려거든 쫓아 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달음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p>
	<p>조 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p>
<p>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지난 뒤인지 동이가 할래별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 없이 허덕이며 충춧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p> <p>"생원 당나귀가 바를 끊구 야단이에요."</p> <p>"[redacted]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음질하려니 거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았다.</p> <p>"부락스런 녀석들이라 어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 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뺨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굵을 몇 번이나 도려 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굵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 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빠졌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p> <p>㉠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니 나귀는 코를 별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 생원은 짐승</p>	<p>"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p> <p style="text-align: center;">[redacted]</p>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어 영역



.....!

고대 희랍의 누드 조각, 르네상스의 누드화, 인상파, 로맹, 피카소 등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에로티시즘은 생명을 새롭게 파악하여 현실의 여러 의미를 보여 준다. 발가벗은 인체를 예술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직시하려는 태도의 표명이며, 삶의 근원을 찾아내려는 모색의 과정이다. 또한 에로티시즘의 조형화(???)는 삶의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현실의 재확인이다. 그러므로 대중들이 즐기고 욕망하는 현실 감정이 가장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드에 반영된다.

우리의 미술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을 경원시하고 남녀 유별(1/8(=)??)에 철저했던 유교적 도덕으로 무장한 조선의 풍토에서 해원 신윤복의 존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왜 해원의 춘의도(???)가 그 시대 산수도보다 대중들에게 잘 수용되었던가? 그것은 그가 당대의 사회적 풍토로 인해 억압되어 있었던 (㉠)을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의 우리 누드 화가들은 어떠한가? 누드를 통해 어떤 현실을 인식시키고 어떤 진실을 표현하려 하였던가? 가령 김인승의 <나부(㉡)>를 놓고 보자. 이국적(???)인 용모를 지닌 풍요한 여체가 옆면으로 등을 보이면서 소파 위에 앉아 있다. 주위의 실내 배경은 서구 스타일의 장식으로 간략히 정돈된 고전풍이다. 그에 따라 나부가 효과적으로 중심을 드러낸다. 기법은 인상주의 이전의 사실주의 수법으로 객관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누드는 우리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그의 누드 속의 인물, 즉 이국적 호사 취미에 알맞은 장식적 인물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보아온 누드 어디에 그 같은 취향이 있었던가? 이 누드의 풍요성과 같은 안정된 현실을 어느 시대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말인가? 결국 그의 누드에 담긴 장식적 현실은 부르조아적 모방 취미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누드화는 부유층(???)의 수요에 의하여 생산되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이처럼 근래의 우리 누드화는 민중의 현실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

어느 시대나 이질 양식(?????)이 전래될 때에는 모방의 경향을 볼 수 있다. 가령 불상 양식의 전래 때에도 중국은 인도의 영향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일본만 하더라도 서양의 무수한 유파를 동시에 모방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서양화를 모방하는 경향만을 가지고 우리 누드화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예술의 각 사조는 특정한 역사적 현실 위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따라서 특정한

어영역

예술 사조를 받아들일 때, 그 예술의 형식 뒤에 숨은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 못한 모방 행위는 형식 미학 내지 관념 미학이 갖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령 어느 예술가가 인상파의 영향을 받았다면, 동시에 그는 그것의 시대적 한계와 약점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접목(?)하고 이식하였을 경우 현실의 문화적 풍토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누드화가들은 과연 그러하였는가?

이국산 화초온실우리의 산야(?)를 아름답게 빛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온실 안의 화초로서 특수층의 수요에 응하여 존재할 따름이다.

	<p>: 아아, 머리 꼴이 허통 빈 것 같구나. 애, 금녀야. 이리 와서 이 애비의 머리카락 좀 짚어 주려마. : (울음을 참으려고 애쓴다.) : 그만 하고…….(골방으로 기어들어간다.) :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가서 그 머리를 짚는다.)</p>
	<p>: 아아, 뭐가 뭘지 꿈 같군그래. 금녀야, 난 아찔아찔한 비탈 위에서 별안간 깊은 구렁 속으로 떨어진 것 같다. 아무리 손을 쳐두 구할 이 없는 구렁 속으로…….</p>
	<p>: 조용히 주무세요, 한잠. 아버지 얼굴빛이 아주 좋지 못해유. : ……. : 아버지 몸이 좀 풀리시거든 제발 오빠한테 편지를 한 장 해 보세요. 그러문 금방 그 구장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것 아녜유?</p>
	<p>: 오늘 삼조(?)두 갔으니까 얼마 안 돼서 무슨 소식이 있겠지. 그 때까지 기다려 볼 일이어. : 아버지, 가만히 좀 주무세요.</p>
	<p>: 애, 갑갑하다. 이 에미한테 한 번만 더 들려 주렴. 그 구장이 하구 간 소리 말야. : 그건 맹탕 거짓말이래두.</p>
	<p>: 뭐?</p>
	<p>: 윗마을 오빠의 친구에게 알아봤더니, 오빠 현 일은 정말 훌륭한 일래요. 우리두 이런 토막살이에서 죽지 말구, 좀더 잘 살아 보자는……. : 그럼 그렇지. 그래, 종신 징역을 산다는 건 정말이라디? : 종신징역? : 거짓말야! 거짓말야! (미친 듯이 부르짖는다.)</p>
	<p>: 암, 거짓말이쥬!</p>
	<p>: 종신 징역이란 감옥에서 죽어 나온단 말 아냐? 젊어서 새파란 그가! 금지옥엽 내 자식이!</p>

어영역

내겐 아무래도,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일야! 그런 청천에 벼락 같은 일이 우리 명수의 신상에 있어 어쩔랴구! 신문에만 난 걸 보구 그걸 우리 명수라지만 그런 멀쩡한 소리가 어딴어? 이 넓은 팔도 강산에 얼굴 같은 사람이 없구, 최명수란 이름 석 자 가진 사람이 어디 우리 자식 하나뿐일 거라구? 이젠 누가 뭐래두 난 안 믿어.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도 없구. 다만 이 증세가 속히 지내가기만 바랄 뿐이지.

: 하키야 그렇겠지. 무슨 말이 저 거칠은 마음에 위안이 되겠니? 마치 게 등에 소금 칠이지. (사립문에 등불을 다는 명서 처에게) 금녀네, 과히 상심치 말게나. 아들 생각다가 지레 죽겠네. (퇴장)

- 유치진 원작, 「토막(?)」

: 옳아! 그놈은 몸도 크구 기상도 좋았겠다! 그놈이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장골이 됐겠니? 제 어미도 몰라보게 됐을 거야. 아아, 명수야! 이제 명수가 저 사립문에 나타나서 장부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이 어미를 부르고, 떠벅떠벅 내 앞으로 걸어와서 그 억센 손으로 이 여윈 팔목을 털컱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 토막 에도 서기(?E) 가 날 거야.

: 아무렴, 서기가 나구말구! 이 어두운 땅도 환해질 거예유. 그러면 어머니는 파리 파시노라구 거리거리로 떨고 다니실 필요두 없을 거구…….

: 나는 암담궁둥이만들여다보구맘을졸이잖아두중구.

: 아이구 금녀야! 우린 이런 형상으로 어떻게 우리 명수를 만나니? 이렇게 찌들어진 형상으루! 네 오빠를 맞이하기엔 이 집은 너무 누추하구나. 금녀야, 우리는 집 안을 치우고 몸을 단속하자. 이런 꼬락서니로 우리 명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애야, 이리 와서 머리를 빗어라. 기름두 남았지? 사립문에는 불을 켜구……. 귀한 사람이 들어올 때 집안이 킁킁해선 못 쓰느니라.

: (어머니의 미친 듯이 서두는 양을 바라보고 있는 금녀의 눈에는 일종의 공포의 빛이 감돈다.)

㉠바람 소리!

: 금녀야, 뭘 하니? 빨리 머리를 풀어라. 에미는 불을 킬 테니까.

: (불안한 듯이 어머니만 꼭 바라보고 섰다.)

: 좀답답해서저러겠니? 보고있는나까지속이줄이는구나.

: 오빠 생각만 나면 저러신대유. 그러신 중에두 오늘은 유달리 심하신 걸유. 난 어쩐지…….

: 당찮어! 무슨그런 엉뚱한생각을. 그러지말구네가어머니 위로를잘해드려라. 위로해드릴사람이아너밖에더있냐?

: 아무리 위로한댕자 소용 없어유. 그리고 내게는

에너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시키고, 양분을 흡수하며,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일상 생활의 하나하나가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화학에너지로서 세포 안에서 유기물이 산화할 때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흙 속에 섞여 있는 유기물로 생활하는 토양 미생물은 유기물이 많을 때에는 번성하지만 유기물을 모두 소모한 후에는 에너지의 공급이 끊겨서 소멸하게 된다.

유기물이란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생물계에서는 반드시 세포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본래 지구상에는 많은 양의 유기물이 있었으나 생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지구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여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유기물이 생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동물은 식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얻고, 박테리아는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 있는 유기물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편 식물은 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유기물은 물론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으로서의 유기물 모두를 스스로 합성해서 사용한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도 주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인데, 이러한 연료들은 오래 전에 살았던 동·식물이 땅 속 깊이 묻혀 화학적으로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기원은 역시 생물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든 유기물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물이 생산한 유기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합성이란 생물 중에서 오직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무기물인 물(H₂O)과 이산화탄소(CO₂)로부터 유기물인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기능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때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물은 이 때 필요한 에너지를 햇빛으로부터 얻고 있다. 지구상에 널리 산재해 있는 삼림이나 농경지에서 매년 약 45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유기물로 전환되며, 이것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강과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유기물로 고정된다. 이처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소비되지만 이것은 대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0.04%에 불과하며, 이는 매년 동물의 호흡이나 미생물에 의한 부패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거의 비슷한 양이다.

식물동물의 호흡 사이에는 오묘한 자연의 이치가 개입되어 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대신 산소를 내보내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산소는 공기 중으로 섞여 나가게 된다. 그리고 동물들은 대기 중에 섞여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 음식을 통해 섭취한 유기물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고, 이 과정에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이용된다.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산되는 유기물의 양은 지상에

서식하는 생물체에 들어 있는 것만도 1조 5천억 톤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을 만한 양이다. 그러나 식물의 광합성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의 유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 표면에도달하는 햇빛의 1만 분의 1 정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요즘 과학자들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전기나 연료와 같은,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태양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진장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인간의 과학은 식물의 광합성에 비해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광합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광합성이 지닌 효율성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무한에 가까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 영역

제승(??)이 어찌 대적(ま?)의 흥계를 알리요. 행여 분부를 어길까 염려하여 그 백미로 즉시 음식을 장만하며, 일변 절 안에 머무는 잡인을 다 보내니라. 기약한 날에 길동이 제적(??)에게 분부하되,

㉠ "내 절에 가 이리이리 하리니 너희 등은 뒤를 쫓아와 이리이리 하라."

하고, 장대한 하인 십여 인을 거느리고 해인사로 향하니라. 이때 제승이 동구 밖에 나와 기다리는지라. 길동이 들어가 분부 왈,

"절안 제승이 노소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절 뒤 벽계(??)로 모이라. 오늘은 너희와 함께 종일 먹고 마시 며 놀리라."

하니, 중들이 먹기도 위할 뿐더러 분부를 어기면 행여 죄 있을까 저어하여 일시에 수천 제승이 벽계로 모이니 절 안은 텅 비었는지라. 길동이 좌상에 앉고 제승을 차례로 앉힌 후에 각각 상을 받아 술도 권하며 즐기다가 기슭에 열 열(??)을 들어갈새 제승은 희미하여 모래를 내어 입에 넣고 씹으니 돌 깨지는 소리에 제승이 혼비백산(????)하는지라. 길동이 대로(ま?) 왈,

"내 너희로 더불어 즐긴 후에 공부하렸더니 이 중놈들이 나를 수이 보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 같으니 가히 통분한지라."

테리고 갔던 하인을 호령하여,

"제승을 일제히 결박하라."

재촉이 성화같은지라. 하인이 일시에 달려들어 제승을 결박할새 어찌 일본 사정이 있으리요. 이때 제적이 동구 사면에 매복하였다가 이 기미를 탐지하고 ㉡ 일시에 달려들어 고(○)를 열고 수만금 재물을 제 것 가져가듯이 우마(??)에 싣고 간들 사지를 요동치 못하는 중들이 어찌 막으리요. 다만 입으로 원통하다 하는 소리 동중(ブ?)이 무너지는 듯 하더라.

이때 절 안에 한 목공이 있어 이 중에 참여치 아니하고 절을

지키다가 난데없는 도적이 들어와 고를 열고 제 것 가져가듯이 하매, 급히 도망하여 합천 관가에 가 이 연유를 아뢰니, 합천 사또 대경(ま s), 일변 관인(??)을 보내며, 또 일변 관군(??)을 일으켜 쫓는지라. 모든 도적이 재물을 싣고 우마를 몰아 나서며 멀리 바라보니 수천 군사 풍우같이 몰려오매 티끌이 하늘에 닿는 듯 하더라. 제적이 크게 겁을 먹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길동을 원망하는지라. 길동이 웃으며 왈,

"너희가 어찌 나의 비계(□리)를 알리요? 염려 말고 남쪽 대로(ま?)로 가라. 내 저 오는 관군을 북쪽 소로(??)로 가게 하리라."

하고,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쓰고, 높은 봉에 올라 관군을 불러 외쳐 왈,

"도적이 북편 소로로 갔사오니 이리로 오지 말고 그리 가 잡으소서."

하며, 장삼 소매를 날려 북편 소로를 가리키니, 관군이 오다가 남로(⑤?)를 버리고 노승의 가리키는 대로 북편 소로로 가거늘, 길동이 내려와 축지법을 행하여 제적을 인도하여 돌아오니 제적이 치하 분분하더라.

<중략>

이날 밤에 길동이 동중에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왈,

"우리 이제는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탈취치 말고, 각 읍 수령과 방백(??)의 준민고택(??)하는 재물을 탈취하여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지니, 이 동호를 '활빈당(??)'이라 하리라."

"함경 감영(??)에서 군기(??)와 곡식을 잃고 우리 종적은 알지 못하며 저간의 애매한 사람이 허다히 상할지라. 내 몸의 죄를 지어 애매한 백성에게 돌려보내면 사람은 비록 알지 못하나 천벌이 두렵지 아니하랴?"

나의 팔자 무상하여 집을 도망하여 몸을 녹림호걸(??)에 붙였으나 본심이 아니라. 입신양명(???)하여 위로 임금을 도와 백성을 건지고 부모에게 영화(??)를 뵈일 것이거늘, 남의 천대를 분히 여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이로 인하여 큰 이름을 얻어 후세에 전하리라!

도로 간 것이 참 길동인 줄을 모르더라. 각각 팔도에 횡행(??)하며 불의한 사람의 재물을 앗아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니, 창고 지키는 군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나, 길동의 손끝이 한 번 움직이면 풍우(??) 크게 일어나며 운무(??) 자욱하여 천지를 분별치 못하니, 지키는 군사 손을 묶인 듯이 막지 못하는지라. 팔도에서 작란(??)하되 명백히 외쳐 왈,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하며, 횡행하되 뉘 능히 종적을 잡으리요?

- 허균, 「홍길동전(??)」

* 준민고택(??) : 재물을 착취하여 백성들을 괴롭힘.

* 녹림호걸(??) : 도적이나 화적을 달리 이르는 말.

어영역

은 것은?

대적(ま?) 홍길동은 해인사의 재물을 탈취하고, 각 읍에서 난동하여 군기(十%)를 도적하고, 아무 때는 아무 고을의 창곡(??)을 탈취하였으되, 이 도적의 자취를 잡지 못하는 고로, 만일 이 도적을 잡게 하면 천금(?MF)을 내리리라. 근일(pW?) 이 도적의 재물을 받는 자 있고, 놈을 따르는 자 많다 들었더니, 이 재물은 나라의 것이니, 만약 말하지 않는 자 도적의 무리로 간주할 것이며, 끝까지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리라.

부 하 :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홍길동 : 너희들은 재물을 실어 나를 말과 소를 준비해 놓도록 해라.

부 하 : 우리 모두 절로 가는 것입니까?

홍길동 : 힘센 사람 몇몇만 나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는 절 주위에 매복하도록 하라.

부 하 : 그 절의 그 많은 중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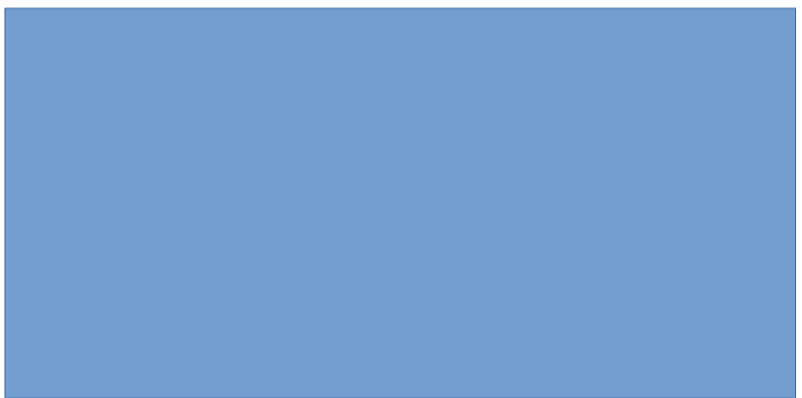
홍길동 : 잔치를 벌이게 하여 한 곳에 모을 것이다.

부 하 : 모은다 하더라도 중들을 꼼짝못하게 할 필요 가 있지않을까요?

: 몰래 준비해간 모래를 씹어, 이를 발미 삼아 중들을 묶을 것이다.

: 관군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 목공을 놓아 주어 내 쪽으로 유인할 것이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발화는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지만, 표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때가 많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란, 무엇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의도했던 반응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따라 듣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감화(感化)라 한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감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현실 세계 등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의 기능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표현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상황이다. 말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 내용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어 영역

둘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들 수가 있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첫째 것과 다르지는 않으나, 특히 듣는 사람에게 감화 작용을 하여 실제 행동에 ① 옮기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

셋째, 단순히 친교적인 기능만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있다.

"날씨 참 사납군요."(폭우를 보면서)

등과 같은 인사말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런 말들은 단순히 언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윤희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

넷째, 표출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놀라거나 위험할 때, 현장에 듣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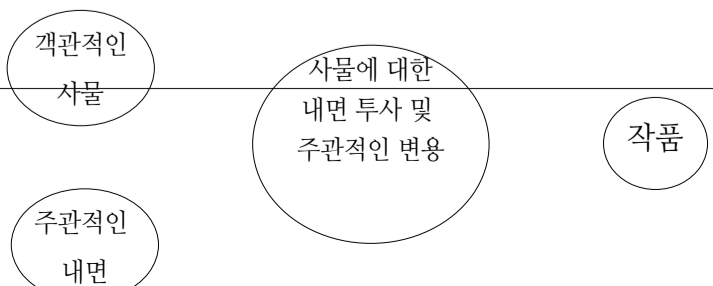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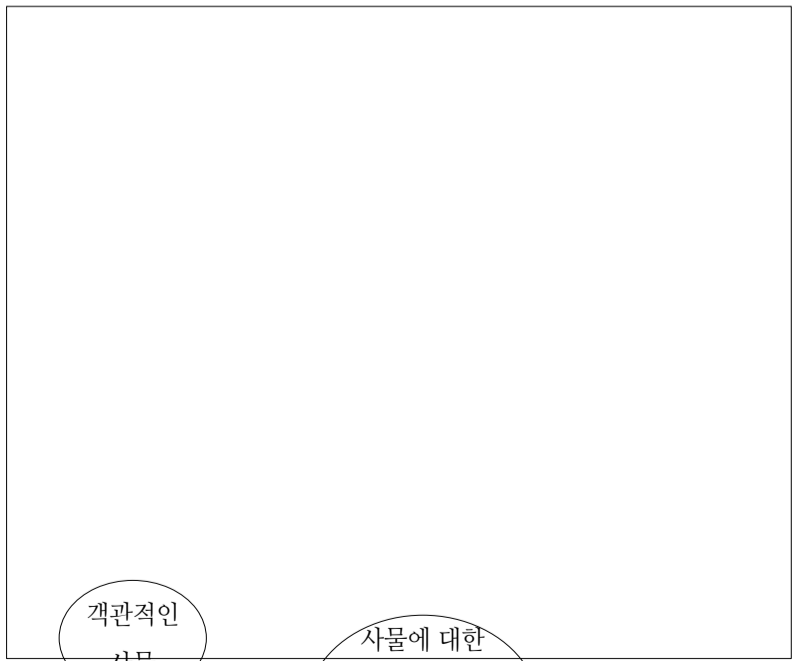
에는 표현 의도도 듣는 사람도 없으니, 기대하는 반응도 있을 수 없다. 표현 의도와 전달 의도가 없는 것은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만 표출된 것일 뿐이며, 표현된 것과는 구별된다.

다섯째,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해 간다. 과거에는 오직 문자 표기만으로 지식 정보를 저장하거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음성을 보존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이 보존 기능은 언어의 전달 기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어영역

	- 이현보, 「어부가(???)」
<p>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허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란 뉘 담으며 진 꽃으란 뉘 쓸려뇨. 학침이 낫브거니 나조ㅎ ㅂ라 싫을소냐.*</p>	
<p>오늘이 부족(??)커니 내일(p?)이라 유여(??)하라. 이 뒀에 앉아 보고 저 뒀에 걸어 보니 변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p> <p>- 송순, 「면앙정가(□???)」</p>	
<p>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네.</p>	
<p>만경파(???)에 띄워 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p>	<p>- 황진이의 시조 - 서경덕의 시조 - 이색의 시조</p>
	<p>- 이조년의 시조</p>



어영역

